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5/11/24~2025/11/30]

2025.12.01

[로봇]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즈의 긍정적 코멘트

- 삼성과 LG전자 로봇 개발 속도. 삼성은 인재 중용 & 자동화 가속, LG전자는 연구소 신설
- 현대차 아틀라스 양산 관련 부품 전문사 수혜 기대감 지속
- 휴머노이드 누적 주문 2천억 돌파한 중국 유비텍. 중국 정부에서는 버블 경고

[방산] 유럽 평화의 허상

- 아직 한국 방산의 수주 기회는 다수. 독일 & 미국과 경쟁은 심화. 정부 협력 확대 필요
- 라우 휴전 위한 미국 노력 계속. 수정 평화안 제시. 러시아 합의까지는 먼길
- 안두릴, 무인함정 등 오류 계속. 디펜스 테크의 취약성 노출

[항공] 에어버스의 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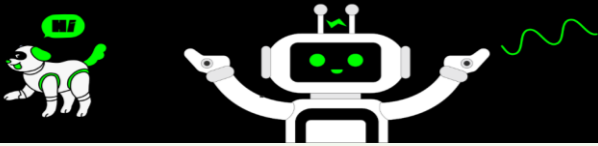
- 티웨이항공, 살기 위한 몸부림. 대한항공 출신 전진 배치하고, 얼라이언스 가입 추진
- 에어버스 주력기 A320 기종의 SW 오류와 엔진 결함 리스크 부상
- 호반그룹의 LS 지분 매각으로 한진칼 경영권 분쟁 관심 재점화

[조선] 속도 붙이는 일본 조선 부활

- 계속되는 국내 조선소들의 탱커 수주. VLCC 운임은 폭주. 컨선은 희망봉 우회 축소 전망
- 미국 마스가 파트너 선정은 연말 크리스마스 전후 결정될 전망
- 폴란드 잠수함은 스웨덴 수주. 한국과 독일 모두 캐나다 잠수함 수주 총력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로봇 위클리예요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05)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즈의 긍정적 코멘트]

-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즈(HDS)의 2025년도 반기 실적 발표에서 휴머노이드 관련 긍정적 코멘트를 다수 확인. 연초 부정적이었던 예측과 달리, 25년 AI 로봇(휴머노이드) 수주액은 25억엔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26년은 물량이 더 늘어날 것이란 가이드. 북미 AI 로봇의 양산화에 따라, 26년(내년) 이후 계획에 맞춰 설비 증강 검토를 이미 시작. 북미 수요 증가에 따라 현지 생산도 점차 강화 중.
- 작년에는 A사로부터 대규모 발주가 있었으나, 올해는 B사로부터 휴머노이드 양산 관련 블랭킷 오더를 수주한 것으로 파악됨. B사의 26년 생산 규모는 25년의 3배가 될 전망. 기술 문제로 중단되어있던 A사와도 협력은 계속 중이며, 기존 주문 재고 소진 이후 재발주 전망. 15개 이상 업체로부터 견적 요청이 있으며, 앞으로 반년~1년 내로 공급사 선정 기대. HDS 외에도 다양한 업체 후보가 있으나, 성능과 양산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동사의 경쟁우위가 뚜렷하다는 자신감.
- 두가지 함의점. (1) 휴머노이드 양산에 따른 부품 기업 수혜가 가시화 되고 있는 점, (2)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감속기 부품은 전문 기업과 협업한다는 점. 이는 국내 로봇 산업에도 적용 가능한 스토리라인 판단.

Key Chart: HDS의 휴머노이드 제품 라인업



자료: HDS, 유진투자증권

Weekly Keyword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즈의 긍정적 코멘트

하모닉드라이브시스템즈가 휴머노이드 향 감속기/액추에이터 공급에 대한 부정적인 뷰를 긍정적으로 바꾸어 제시. 조금씩 양산 페이스에 접어들고 있다는 코멘트. 25년 수주액은 25억엔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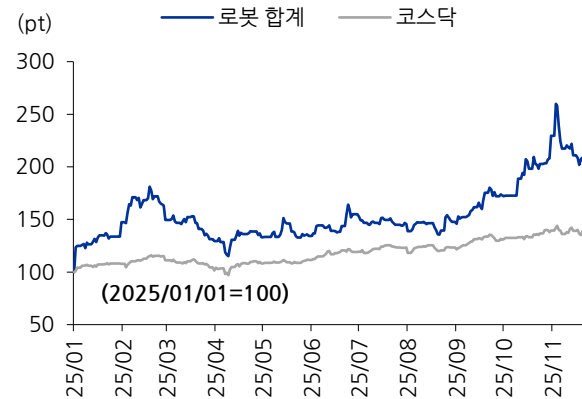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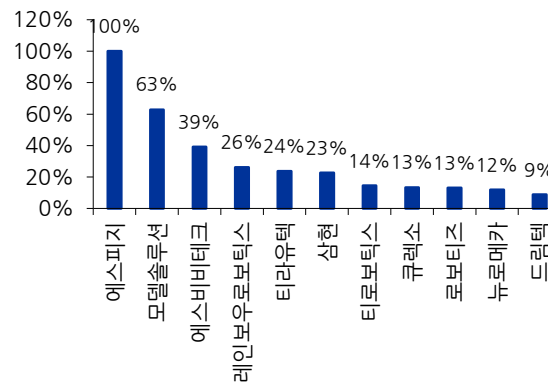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로봇 주요 뉴스(11/24~11/30)

[전통 로봇(산업용/서비스)]

- 시스콘, 기아차 광주공장에 AI 자율주행 로봇 공급

[휴머노이드]

- 로보티즈, CU 물류센터서 AI 휴머노이드 실증
- 두산로보틱스 휴머노이드로 전환 추진. 인수합병 만지작

[부품/SW/기타]

- 삼성전자, AI·반도체·로봇 인재 대거 중용
- 삼성 그룹, 전 계열사에 로봇자동화 도입 가속
- LG전자, 가정용 로봇 연구 'HS로보틱스연구소' 신설
- 네이버랩스 유럽, AI 워크샵 개최. 로봇 위한 AI 기술 선택
- 로봇 관철에 쫓긴 현대모비스, 대규모 인재 채용
- 삼현, 빅테크 2곳 수주 입박. "휴머노이드 관절 공급"
- 디아이씨 "현대차 아틀라스 관련 1차 기술협의 단계"

[Global]

- 中 당국, 휴머노이드 로봇 거품 위험성 경고
- 中 동평자동차 "내년 휴머노이드 로봇 2종 선보일 것"
- 中 선두 로봇 센서 기업 '링크터치', 200억원 투자 유치
- 中 유비텍, 휴머노이드 올해 누적 주문 2,000억원 돌파
- 中 애지봇, 올해 5,000대 휴머노이드 생산 목표 제시
- 테슬라 AI 핵심 인력 대거 이탈. 선데이로보틱스로 이동
- 디즈니, 겨울왕국 올라프 구현한 로봇 2026년 도입
- 보스턴다이내믹스 "현대차 공장 휴머노이드 투입 시작"
- 일본 정부, 사로봇 등 6대 '국가전략기술' 지정
- 야스카와, 미국 新공장에서 AI 로봇 제조 추진
- 화낙, 운반 가능한 11kg 협동로봇 출시. 조선업 타겟



Weekly Keyword

유럽 평화의 허상

올해 러-우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며 방산 업종의センチメント가 무너지는 일이 수차례 발생하고 있으나, 휴전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 휴전 이후에도 유럽에서는 쉽게 긴장감이 사라지지도 않을 것,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53)

[유럽 평화의 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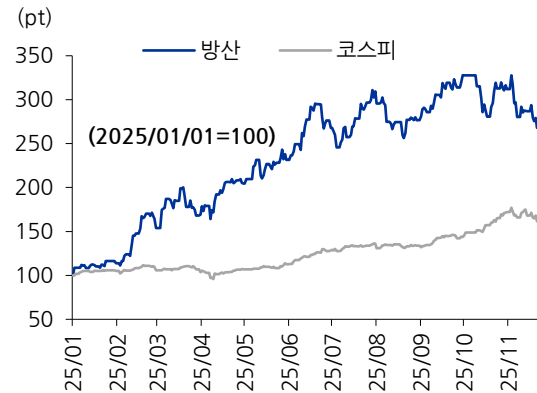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미국이 제시한 평화안(28개 조항)이 우크라이나 및 유럽측 의견을 수렴하여 19개 조항으로 수정. 영토 이양 및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나토 가입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러시아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공방이 계속될 전망. 휴전은 쉽지 않음.
- 지난 주, 외신 보도를 통해 1,200 페이지에 달하는 독일의 비밀 작전 계획(OPLAN DEU)도 공개됨. 러시아와의 전쟁시 병력/물자 수송 계획 등을 포함. 러-우 휴전은 러시아가 재무장하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고 있을 뿐, 수년 내 NATO를 공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내재되어있음.
- 러-우 휴전 가능성이 제기될 때 마다 방산 업종은 조정 국면을 맞이. 일단 무엇보다 휴전이 말처럼 쉽지 않을 뿐더러, 휴전 이후에도 평화 가 찾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음.

Key Chart: 중요한 독일 교통 인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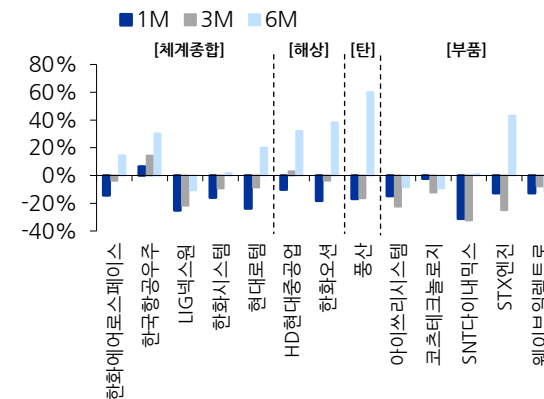


자료: WSJ, 유진투자증권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방산 주요 뉴스(11/24~11/30)

[수주/계약]

- 한화에어로·한화시스템, 1.1조 L-SAM 양산 사업 수주
- 이달 말까지 폴란드와 K-2 현지 양산 협상 마무리 전망
- 스웨덴 전차 도입 추진 속 K-2 전차에 대해 관심 표명
- 이집트, FA-50 100대 도입 임박. 70대 현지 생산 추진

[기업별 이슈]

- 한화에어로, BCG·CJ·KAI 등 전방위서 전략인재 폭풍영입
- 에스토니아, 한화에어로에 탄약 생산·MRO 시설 '구매'
- LG넥스원, UAE와 합작법인. 차세대 방공체계 공동개발
- KAI가 총괄 주관한 차세대 중형위성 3호 발사 성공
- 한화시스템, 구미에 2,800억 투입 'K-방산 전진기지' 준공
- 삼양컴텍, 생산능력 확대 속 페루향 신규 수출분 확보

[기타]

- 안구백 장관, 노르웨이 & 스웨덴 방문. "방산협력 논의"
- 방사청, 민간과 1,600억원 'K-방산수출펀드' 신규 조성
- 육군, 폴란드 등 방산협력국 대상 K9 운용·정비 교육

[글로벌]

- 폴란드, SAFE 프로그램에 437억 유로 지원 신청
- 안두릴, 실전·훈련서 제품 기술결함 연이어 노출
- 美 보잉, 폴란드에 아파치 47억달러 헬기 96대 수출
- 사우디, 제너럴 아토믹스와 최대 200대 CCA 도입 논의
- 튀르키예 UCAV 크즐예마 BVR 미사일 발사 시험 성공
- 대만, 30년까지 국방비 GDP 5%로 증액. 58조원 추가
- 유럽 지도자들 우크라 평화안 진전 환영 속 신중론도
- 日, 필리핀에 자위대 방공 미사일·호위함 수출 추진



Weekly Keyword

에어버스의 결함

에어버스의 주력 기종에서 또 결함 발생. SW 오류는 업데이트로 해결 가능하지만, 엔진 결함까지 겹치는 중. 극저온에서 비정상 결빙 확인. 2023년에도 엔진 크랙으로 전세계 운항 차질 발생했음.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53)

[에어버스의 결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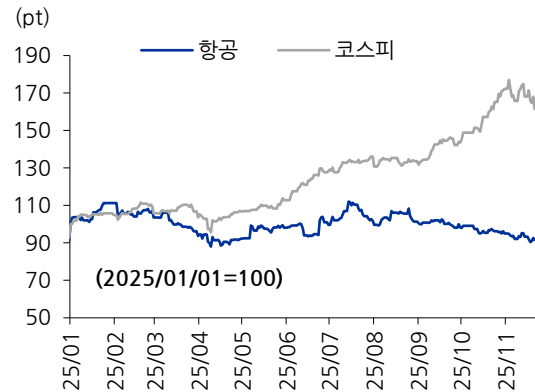
- 에어버스의 주력 기종인 A320 Family에서 결함이 발생.
- 첫번째 결함은 SW 오류. 태양 복사열 영향으로 기체 오작동 가능성이 확인됨에 따라 리콜을 결정. 다행히 신속한 SW 업데이트로 영향은 최소화함. 한국도 대한항공(10대), 아시아나(17대) 등 42대가 대상이나, 30일 오전까지 대부분 업데이트 완료.
- 두번째 결함은 엔진 관련. P&W사의 PW1100 엔진이 영하의 기온에서 엔진 팬 블레이드에 비정상적인 결빙 현상 발생을 확인. A320 NEO 계열은 P&W의 PW1100, CFM의 LEAP 엔진 선택지가 있으며, PW1100의 점유율은 약 43% 수준. 한국은 대한항공이 PW1100, 아시아나가 LEAP 엔진을 채택 중. 아직 공식적인 결함 인정 및 조치는 없으나, 2023년 엔진 결함사태와 마찬가지로 운항 영향 가능성 주시.

Key Chart: A320 NEO Family 엔진 옵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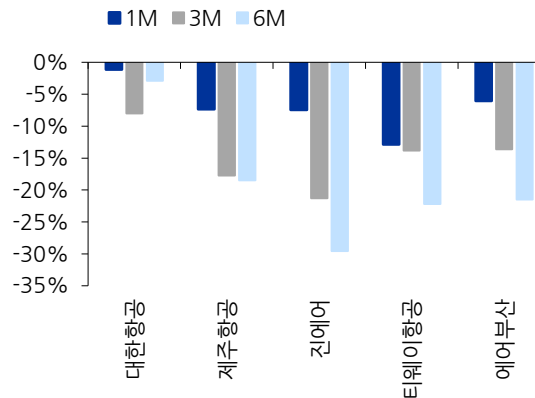
기종	P&W	CFM
A319 NEO	PW1124G1	LEAP 1A24/26
A320 NEO	PW1124G1/27G/29G	LEAP 1A24/26/29
A321 NEO	PW1130G/33G	LEAP 1A30/32/33

자료: 유진투자증권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항공 주요 뉴스(11/24~11/30)

[여행/화물]

- 에어프레미아는 워싱턴, 티웨이에는 시애틀 노선 취항하나
- 정부, 지방서 중동 직항로 계획. UAE와 항공 운수권 확대
- 티웨이항공, 라오스 비엔티안 노선 열었다 돌연 취소
- 티웨이항공 화물 1만1000톤 첫 돌파. 역대 분기 최대

[기업별 이슈]

- 대한항공,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에 '정비격납고' 신설
-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속 요직 대한항공 썬슬이 논란
- 대한항공, 공정위 승인 지연에 마일리지 통합 안내 연기
- 티웨이항공, 대한항공 출신 영업팀 전진배치
- 티웨이항공, 스타얼라이언스 가입 추진
- 에어로케이, 항공기 추가 도입해 9대 보유
- 위닉스, 파라타 지분 700억 추가 취득. 완전자회사 전환

[기타]

- 국토부 "'리콜' A320 30일 오전중 소프트웨어 교체 완료"
- 호반그룹, LS 지분 팔아 한진칼 주식 매수할까
- 인천공항 이스라엘 IAI 화물기 개조시설 준공 내달 가동

[글로벌]

- 中 항공사, 日 노선 904편 운항 중단에 이르러
- 中 정부, 항공사에 내년 3월까지 일본행 항공편 감축
- 에어버스 A320 SW 오류 '급강하 우려'에 대규모 리콜
- 에어버스 P&W 엔진 장착 A320neo 확한기 운항 제한 요청
- 美 추수감사절 여행객 사상 최대 8,180만명 예상
- STR, 10월 일본 호텔 단가 전년비 15% 상승
- 타이항공, 국내 MRO 거점 확보에 5천억 투자



Weekly Keyword

속도 붙이는 일본 조선 부활

일본이 조선업 부활 계획을 차근차근 실행 중. 1조엔 투자해서 조선소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정책 외, 일본 선박 수요를 일본 조선소에 우선 발주하는 움직임도 관측.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조선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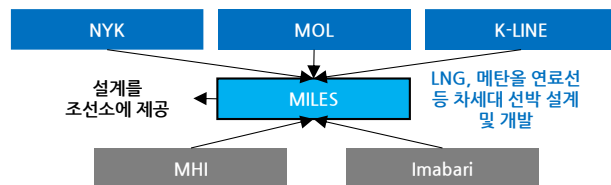


What's new? - 조선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33)

[속도 붙이는 일본 조선 부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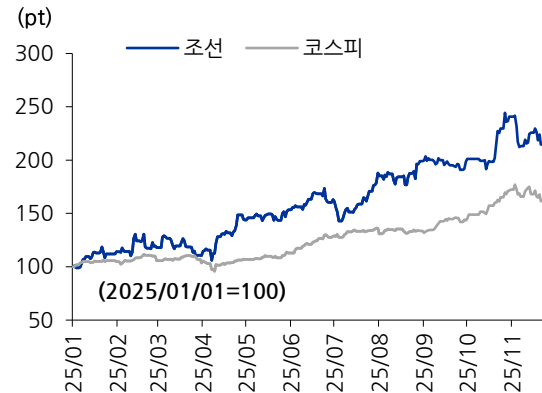
- 일본의 조선업 부활을 위한 계획이 차근차근 실행되고 있음. 일본은 35년 24년 대비 건조량 2배 목표 달성을 제시 중.
- (1)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조엔 민관 공동 투자(조선업 재생기금)를 통해 조선소 설비투자 지원을 계획(정부 3,500억엔, 민간 3,500억엔). 25년도 예산 추경안에서 조선업 재생기금 1,200억엔을 계상(26~28년도분)하면서 현실화. (2) 연내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 전망이며, 국영 조선소 계획도 발표된 바 있음. 11월 이마바리 조선소 JMU 자회사를 두고 공정위가 승인하며, 조선업체간 M&A도 허용되었음. (3) 또한 조선사와 해운사간 협업도 주목. 미쓰비시중공업과 이마바리조선소가 공동출자한 선박 설계 회사에 NYK, MOL, K-LINE이 지분 참여. 차세대 선종 기술력 확보 뿐만 아니라, 선박 설계 공통화로 양산 효과 키우고 일본 국내 우선 발주를 추구. (4) 인력부족 속 기능 교육 및 외국인 인재 확대. 로봇 자동화도 투자. 화낙은 이미 3년전 조선소 요청에 따라 조선 용접에 투입할 수 있는 중량 11kg의 경량 협동로봇을 개발. (5) 10월에는 미-일 조선 협력 각서 서명하면서 양국 조선 건조 능력 확대 및 협업을 추진 중.

Key Chart: 일본 해운 & 조선사의 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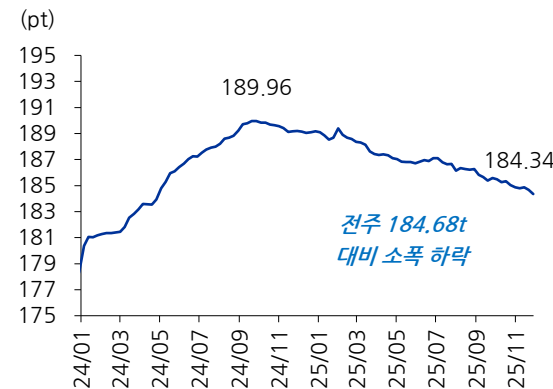


자료: 언론 보도, 유진투자증권

국내 조선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신조선가 추이



자료: Quantwise, Clarksons

조선 주요 뉴스(11/24~11/30)

[상선/해양]

- 이스라엘 해운사, HD삼호중공업에 유조선 4척 발주
- HD현대, 2.1조원 규모 초대형 컨테이너선 8척 수주
- 한화오션, 7,577억 규모 VLCC 4척 수주
- 한화오션, HMM과 1.1조원 컨테이너선 4척 건조 계약
- HD현대, 그리스 에발렌드 수에즈막스 2척 추가 수주

[특수선]

- 폴란드, 오르카 잠수함 사업 스웨덴 사브로 확정
- 에스토니아 함정 입찰에 한화현대중 최후 후보 선정
- 캐나다 산업장관, 한화오션 거제조선소 방문
- 온타리오주 경제장관, 독일 이어 내년 초 거제 방문 예정

[기타]

- 삼성중, 미 상무부에 마스가 사업 계획서 제출
- 마스가 참가 조선사 '크리스마스'에 윤곽 예정
- 조선해양기자재협, 美 조선소에 선박수리 기술 전파
- 한화오션, 필리조선소 1,427억 증자 참여
- HD현대중 '암모니아 화물창 기술' 국내 최초 확보
- 다음달 HD현대, '동남아 총괄' 싱가포르 투자법인 설립
- 한국산 선박 엔진, 中 수출 8억 달러 눈앞. 3년 만 2.7배

[글로벌]

- 조선업 재건' 일본 발주 내부로 돌리고 미국과 밀월 강화
- VLCC 운임 하루 14만 달러 돌파. 5년 만에 최고치
- 수에즈 운하 관리청, "머스크 12월 홍해 복귀"
- 獨 해군, 함정 두뇌로 '캐나다 CMS' 낙점
- 美 해군, 伊조선소 주문한 호위함 4척 건조 취소 결정